박종훈의 지식한방 · Fanding @kpunch

Part 4 — Q&A

5월 2주차 Q&A — 미 재무부 유동성 공급의 한계 & 1,460원대 환율 대응법

- 정리 2026-05-22

5월 2주차 Q&A — 미 재무부 유동성 공급의 한계 & 1,460원대 환율 대응법

Part 4-4강(2026-05-08, 시리즈 결론) 직후 Q&A. 큰욕돌님 3 질문에 선수로 답한다.

- **Q1** — 선거 앞두고 유동성 공급 시작? (베센트 계획 실행 가능?) · **Q2** — TGA 잔고 감소 = 주가 상승? (타이밍은?) · **Q3** — 환율 1,460원대 환전 적기?

세 질문 모두 하나로 연결 — **TGA + 연준 + 이란**이 11/3 중간선거를 좌우하는 3 변수.

베센트의 치밀한 선거 전략 — 2개월 전 강사 예측

강사가 2개월 전 유튜브에 올린 콘텐츠 "나스닥은 미끼였다, 베센트의 치밀한 선거 전략":

1. **작년 가을** — TGA 채워넣기 (국채 발행 → 시중 유동성 흡수 → 주가 하락) 2. **5월 이후** — 추가 발행 자제 + TGA 풀기 → 주가 상승 3. **9~10월 정점** — 주가·고용 부양 → 11/3 트럼프 승리

원래 **8개월 탄약**으로 5~10월 6개월 부양 + 9·10월 정점 + 11/3 선거가 필승 시나리오였다.

사실 확인 ① — 베센트는 정말 채웠다

시점	TGA 잔고
2025-07-08	2,700억$ (낮은 수준)
2025-11 정점	**9,750억$**

가을 동안 약 **7,000억$ 흡수**. 시중 유동성이 마르면서 자산 가격 슬금슬금 하락. 비트코인이 대표 — 작년 가을부터 가장 큰 영향 받음.

사실 확인 ② — 차트가 폭로한 진실 (2~4월)

시점	TGA 잔고
2026-02	9,400억$
2026-04 초	**6,800억$**

약 -2,600억$ (4,000조 원) 살포. 원래 5월부터 풀기로 했지만 **두 달 당김** — 이란 전쟁 변수.

사실 확인 ③ — 그러나 다시 새기 시작

4월 15일 미국 세금일에 세금이 들어와 4/22에 +3,270억$ 일시 회복. 그러나 4/22 이후 다시 하락. **"수도꼭지를 잠그지 않고 욕조에 물을 받는 격"** — 세금 들어오는데 그것보다 더 빠르게 뿌리는 중.

이란 전쟁 = 베센트의 시계를 부쉈다

시점	이벤트
2026-02-28	미·이란 전쟁 시작
3월 초	Brent 118$ (전쟁 전 73$)
4/22	트럼프 무기한 휴전 선언
4/30	Brent **126$** (4년 최고)

8개월 탄약 → 6개월로 압축. 베센트 입장에서 이란 전쟁으로 투심 악화 시 정작 5월 돈 풀어도 효과 없을 위험 → 3월부터 미리 살포.

연준 협공 — 12월부터 시작된 단기 국채 매입 (RMP)

기간	단기 국채 매입	MBS 재투자	합
12~4월 (5개월)	월 400억$	월 150~200억$	**3,000억$**

파월은 양적완화 비판에 "장기 국채 아닌 단기"라 변명했지만 효과는 비슷. 미국 신용 상황이 좋지 않아 조용히 양적완화 비스무리한 짓.

더블 펀치 산수

출처	금액
재무부 TGA (2~4월)	4,000억$
연준 단기 국채 + MBS (12~4월)	3,000억$
합산 유동성 살포	**7,000억$**

이게 얼마나 큰 돈인가? **글로벌 금융위기 1차 양적완화 1조$에 근접.**

4월 자산 폭등 — 3중 펀치 = TGA + 연준 + 휴전

지수	4월 상승률
S&P 500	**+10%** (2025-11 이래 최대 월간)
나스닥	**+15%** (2024-04 이래 최대 월간)

유가가 폭등(Brent 126$)했음에도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이유 — 이체 증시는 완전히 유동성의 힘으로 좌우. 3중 펀치가 몰에 다 폭발. 그러나 미리 펀치 다 쓴 만큼 **그 뒤 펀치가 없다**는 뜻.

향후 인플레이션 — 2 충격 합산

시점	충격	원인
5/12	1차 충격	4월 CPI 발표 (휘발유 직격)
6/12	1.5차	5월 CPI (유가 영향 본격화)
7~9월	**2차 충격**	**베센트 돈 풀기 6개월 lag**

연준 돈 풀기는 18개월 lag지만 재무부는 6개월 안에 물가 영향. 케빈 워시가 CPI 통계 규칙 바꾸자고 주장하지만 연준 표 대결에서 반대가 더 많음.

11/3까지 산수 — 부족분 발생

항목	금액
보유 탄약 (4/22)	**1조 70억$**
(-) 최소 유지 잔고	3,000~5,000억$
(=) 가용 탄약	**5,000~7,000억$**
6개월 예상 지출 (월 1,500~2,000억$)	**9,000억~1.2조$**
결론	**9,000억$+ 필요 vs 4,000~7,000억$ 보유 → 산수 안 맞음**

8월부터 돈 못 뿌릴 수도 있음. 정작 인플레 폭발 + 금융 시장 불안 시점에 유동성으로 주가 끌어올릴 탄약이 부족.

ON RRP 에어백도 사라짐

시점	역레포 잔고
2022	2.4조$
2024 현재	**거의 0**

에어백 사라진 셈 — 충격이 시장에 직접 전달. 베센트 탄약 효과가 예전보다 2~3배 강하게 시장에 영향.

9~10월 진퇴양난 — 어느 길로 가도 트럼프에 나쁨

길 A: 더 풀기	길 B: 자제
인플레 폭발 (세금 직후 + 유가)	유동성 부족
케빈 워시 통계 변경 시도 X	주가 하락 → 선거 패배 위험

연준이 도와주려 해도 인플레 때문에 망설임. 이게 베센트 치밀한 전략의 진짜 한계.

> 재갈공명이 모든 걸 다 계획했는데 인간이 아무리 철저히 계획해도 하늘의 뜻은 어쩔 수 없구나. — 삼국지

트럼프가 이란만 공격 안 했으면 이 상황은 안 왔다. 베센트 = 진퇴양난.

환율 1,460원대 — 환전 적기인가?

항목	환율
현재 (4/27)	**1,472.5원**
1년 평균	1,430원 (40원 ↑)
1년 범위	1,347~1,538원
3년 평균	1,370원 (도달 어려움)

환전 원칙 — 강사 진화

시기	원칙
~2019	**3년 평균 이하 환전** (백전백승)
최근	1년 평균 이하 환전
지금	**1년 평균 이하 + 매달 분할 환전**

환율 예측은 불가능 — 정부가 외환 보유액 + 국민연금 동원하면 100~150원 마음대로 내림. 시장 원리 X. 다만 장기 환율 상승 압력은 계속.

완벽한 시점은 아니나 변동성 큰 6개월이 시작됐으니 분할 환전 권고.

닻과 돛 포트폴리오 — Part 4·6강 예고

향후 6개월 대응:

구분	자산
닻 (어느 길로 가도 견딘다)	단기 미국채 (SGOV)
돛 (유동성 효과를 누린다)	AI 인프라, 에너지·원자재, 선택적 노출
멍청 (위험)	원화 예금, 장기 국채, 광역 지수 ETF

선거 이후가 진짜 위기다. 지금부터 6개월 — 자산을 점검할 시간.

핵심 통찰

- 베센트는 8개월 탄약을 갖고 시작 - 이란이 6개월로 압축 - 4/15 세금이 잠깐 보충했지만 다시 새고 있음 - **11/3을 향한 가장 위험한 6개월이 시작됐다**

11/3 이후 어떤 시나리오로 가든 닻(SGOV)을 단단히 + 돛(AI·원자재)을 신중하게. 멍청(원화 예금·장기채·광역 지수)은 피하는 게 핵심.

ONE LINE

베센트는 8개월 탄약을 갖고 시작했지만 이란이 6개월로 압축했고, 4/15 세금이 잠깐 보충했어도 다시 새고 있다. 11/3을 향한 가장 위험한 6개월이 시작됐다. 닻(SGOV)을 단단히 + 돛(AI·원자재)을 신중하게. 환율은 1년 평균 이하 + 매달 분할.

출처

박종훈의 지식한방 — Q&A 5월 2주차 (2026-05-11, parent: Part 4-4강).